

# “5대 분야 전략적 육성 통해 미래의료시스템 구축”

## 정신 전남대병원장 취임 1주년 인터뷰

### 심혈관·뇌졸중·호흡기·외상·장기이식 분야 육성 영역 선정...지역의료 성장 동력 확보 “에타 통과 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완성”

의료대란의 초유의 사태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역의료의 중심인 전남대학교병원을 책임진 정신 병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안팎으로 터지는 각종 이슈와 상황속에서도 전남대병원을 훌륭히 이끌어 오며 지역의료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정 병원장의 취임 소감을 들어봤다.

-취임 1년간 성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해 1월29일 취임 직후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제의 어려움 속에서 1년을 보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민을 위해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먼저 매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Re: Branding Vision 2030’을 선언하며 새 비전과 3대 경영방침, 4대 핵심가치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이래 최초로 완전 무분규 임금 단체협상 성공을 이끌어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영진 워크라운딩을 26회 진행해 병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에 선정됐으며,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영평가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평가 / 급성기 뇌졸중 평가 /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등 각종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거두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호남·충청 최초로 장기이식 1000례를 달성하고, 광주·전남 최초로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에 성공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대란의 초유의 사태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역 의료의 중심인 전남대학교병원을 책임진 정신 병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11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4차 참여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와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입원환자 중 적합질환자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지역 중증 환자 치료의 핵심 거점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대규모 이탈과 장기간의 비상진료체계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지역보건의료체계와 골든타임 내 중증환자 치료 수행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수술 및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병상 이용률이 하락하게 되면 질환 조기 발견 및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 개인의 건강지표가 떨어지는 위험에 봉착될 수 있다. 지금도 의정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경영난 또한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전남대학교병원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병원 내 진료와 수술 건수가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수익이 약 21.4%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익 감소는 곧 자금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고강도 비상경영 체제 도입과 외부 자금 차입이라는 극단적 조치로 이어졌다. 특히 병원은 비상경영 조치로서 비용 절감 활동, 신규 채용 중단, 병동 통폐합, 안식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중증 및 응급 환자 위한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진 확보 및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거점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내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진행상황은.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은 2023년 1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1월 한차례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 1차 회의까지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기재부 2차 회의와 정책성분석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에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거점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요를 확충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적 고려도 반영한다면 병원 신속사업은 반드시 에타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타를 통과하면 새 병원은 2단계에 걸쳐 신속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1단계로 동관 건물은 2030년까지 완공한 후, 2단계로 서관 건물은 203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지만 가능한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조기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미래 의료 육성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 중인가.

△전남대병원원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지역 의료 수요를 융합한 ‘차별화된 미래 의료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리는 ‘2050 메가트렌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심혈관, 뇌졸중, 호흡기, 외상, 장기이식 등 5대 분야를 전략적 육성 영역으로 선정했다. 이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약 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9대 질병군(예: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과 지역사회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전남대병원의 미래 의료 육성 전략은 전문 질환 센터 등 시설 확충과 ‘기술과 의료의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2년간 5대 센터에 집중 자원을 투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보장하고 연장하는 전문 진료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에는 새 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0년을 지역과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의료진과 직원 모두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509명 합격... 지난해 5분의1 수준

### 필수의료 ‘내외산소’, 전년비 급감 심장혈관흉부외과 합격자 6명 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올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최종 합격한 전공의는 총 509명에 그쳤다. 신규 전문의 배출이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25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제68차 전문의 자격 시험 2차 시험에는 응시자 총 522명 중 509명이 최종 합격해 합격률은 97.5%였다. 2차 시험 응시자 중에는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이후 최종 탈락했다 이번에 응시한 22명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4일 시행된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 534명 중 500명이 합격해 합격률

은 93.6%로 집계됐다. 올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최종 합격한 인원(509명)은 지난해(2727명)의 18.7%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신규 전문의 배출이 지난해의 5분의1에도 못 미친다. 의사 양성 시스템은 전공의 과정인 인턴(1년)·레지던트(3~4년)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게 돼 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응시자가 크게 줄어 전문의 배출 절벽이 현실화했다.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보려면 수련병원에 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지난 20일 기준 약 8.7%에 그쳤다. 전문과목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 이른바 필수의료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합격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내과 합격자는 8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531명)의 6분의 1 수준에 그

쳤다. 외과 합격자는 18명으로, 지난해(149명)의 8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산부인과도 112명에서 13명으로 8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4명으로 지난해(131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응급의학과는 166명에서 28명으로 6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합격자는 올해 6명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지난해(30명)에 비해 5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뉴스스

그린 알로에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이 300mg입니다.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  
100% 국내산 원료 사용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